

사람은 저마다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한 방법에 의해 때론 좋은 결과를 때론 나쁜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지금의 내 인생도 그러한 삶의 선택에 의해 오늘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너무나 아쉽기만 하다.

### 죽음까지의 인생

유난히도 공부하기 싫었던 나는 학교 다니기를 포기하고 17살 때부터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은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었다. 어린 나이지만 페인트 기술을 배운 나는 어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을 모방해 따라가기 시작했다.

특히 건설 쪽이나 노동 쪽 사람들이 그러하듯 매일의 일과가 끝나면 당연히 술자리로 이어지고 술자리 시간은 갈수록 더 길어져만 갔다. 어린 나이지만 돈도 벌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재미에 빠져서 흥청거리는 삶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덧 내게는 결핵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느낄 여유조차 없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젊음의 시간이 왜 그리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어느 날 군대에 가야한다는

통보를 받고 누구나 그러하듯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고 난 그곳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폐에 이상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라는 것이었다. 의심 반 두려움 반으로 병원에 가서 흉부 사진을 찍어보았다. 담당 의사는 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진단결과를 알려주었다.

결핵...폐결핵...그렇게 재미있고 신나던 나의 인생은 그 한 마디에 의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 것을...

하지만 역시 젊음이 좋은 것인지 보건소에서 7개월의 약을 복용한 후에 증상의 호전에 따라 약을 끊게 되었고 또다시 내 삶의 모습은 전의 모습처럼 변해갔다. 미련한 것이 사람이라던가! 너무도 쉽게 치료가 되어버린 탓인지 난 결핵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또다시 계속되는 생활의 즐

거음 속에서 언제 아팠냐는 듯이 주위의 술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어떤 때는 아예 술을 먹느라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들도 많아졌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어느 정도 이어지자 몸에서 다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침이 심하게 나오고 어떤 때는 무기력해지는 나쁜한 몸 때문에 힘들어야 했고, 마치 감기라도 걸린 듯 미열에 시달리는 생활, 그러면서도 난 내 마음속에서 들

아지지 않았고 약을 복용해도 그것이 쉽게 듣지를 않았다. 그래도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나의 삶은 치료를 진행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한곳에서 꾸준히 치료한 덕분에 다행히도 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결핵에서는 나음을 얻게되었다.

그러나 역시 인생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던가?

결핵은 치료를 했지만 오랜 폐의 상함으로 인해 기관지에 합병증이 와서 이것이 결핵이 나온 것인지 아닌지 분간 못할

**난 오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비록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희망이란 그것을 가슴에 품는 그 순간부터 인생을 살피게 하는 가장 좋은 행복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려 오는 소리에 애써 귀 기울이지 않으려 했다. 결핵재발...

그리고 그냥 감기라고 최면을 걸 듯 자신에게 말하며 감기 기침약만을 복용하고 버텼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생활을 지켜보다 못한 동생이 여기 저기를 수소문하더니 순천 결핵 재활원이라는 곳을 찾아 나에게 입원을 권유했다. 난 어차피 더 이상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아 그냥 순순히 내 삶의 발걸음을 돌려 병원에 입원을 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여의치 않아 치료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필요했다. 더욱이 재발로 인한 치료라 전처럼 쉽게는 나

정도로 심한 기침과 가래를 항상 몸에서 내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남보다 빨리 돈도 벌면서 재미있고 신나는 인생의 꿈을 꾸게 했던 나의 젊은 날들은 결핵이라는 이름 하에 고통의 날들로 변해갔고 그저 아팠다가 낫는 일순의 병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참으로 두려운 결과만을 내게 남겨주었다.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회와 격리되어 이루어진 치료로 인한 내 인생의 공백으로 사랑했던 사람마저도 내 곁을 떠나갔다는 것이다. 함께 인생의 아름다움을 꿈꾸면서 희망을 이야기했던

내 사랑하는 사람도 역시 결핵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온전해 질 수 없는 내 육체의 상함 앞에서 그렇게 떠나가야 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충격을 이길 수 없었던 나의 방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의 기억으로 오늘도 내 기억 깊은 곳에 이렇게 아련한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오늘까지도 이렇게...

### 희망의 끈은 놓지 않음

기름 난 어머니를 뵈러간다.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서 더 이상의 무엇을 바라보시지도 못하실 어머니, 그러한 어머니를 찾아 빌 때마다 난 남몰래 돌아서는 눈물을 감추어야한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아들을, 더욱이 남들 그런 것처럼 평범한 삶마저 살지 못하는 아들을 그저 바라보시며 그 아픈 가슴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머니의 한가득 슬픔이 배인 눈빛이 내게로 다가올 때마다 난 그냥 그 눈빛을 피하고 만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내 가슴의 아픔만을 감싸안으며.

아직도 내겐 기회가 있다고 난 생각한다. 겨우내 숨죽였던, 마치 생명을 상실했던 것 같은 들녘에 파릇한 새싹이 돌아 또 다시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나 또한 지금은 숨죽인 겨울 같은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 인생에 있어 그렇게도 기다리는 봄은 분명 다시 내게 활짝 손짓

하며 다가오리라 난 굳게 믿고 있다.

바라는 것은 어머니가 살아 계실 동안에 꼭 건강한 몸을 되찾아 아픔으로 멎게 했던 어머니의 가슴을 환한 미소로 바꾸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행복함을 맛보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요,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오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비록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희망이란 그것을 가슴에 품는 그 순간부터 인생을 살지게 하는 가장 좋은 행복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들이 내 앞에 많이 남아있듯이 내가 격어야 할 일들도 많을 것이다.

그 때마다 난 최선의 선택을 통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리라 오늘도 다짐해본다. 어릴 적 무심코 내렸던 결정이 이렇게도 원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은 항상 가슴에 품고 또다시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난 오늘도 최선의 것을 위한 선택을 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본다. 내 희망이 다시 힘찬 날개 짓으로 날아오를 그 날을 위하여. ¶

'결핵환자의 나들이'는 결핵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결핵을 앓으셨거나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사연 기다립니다.